

창신동 쪽방촌 주민 인터뷰

# 그래도 이곳을 터전 삼아

창신동 쪽방촌은 장기 거주자가 많아 시골 동네와도 같은 분위기다. 창신동 쪽방 주민 이호연(남·70) 씨는 동네 분위기를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딜 가도 착한 사람들이 있고 짓곳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통 다 착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변명도 안 하고 그냥 며칠 먹을거리 있으면 그런대로 유지하면서 살아.”



쪽방 주민 이복례 씨

이복례(여·86) 씨에게 창신동은 그간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내가 여기서 60년 정도 살았어. 아들 둘 키웠는데 이제는 멀리 떠나보냈어. 그걸로 세 명 더 낳아서 기를 쓰고 돈 모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거야” 불편한 점을 묻자 이 씨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방문도 열아놓고 잘만 살아요. 이런데 뭐 있다고 도둑놈이 들어오나. 더운 것도 선풍기, 에어컨 있어서 괜찮아요. 건물에 딱 세 명 사는데 다 일 나가서 화장실도 나 혼자 쓰는 셈이구. 지붕도 새로 다 해놔서 비와도 안 새고요.” 이 씨는 오는 12월 동태문에 있는 LH 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예정이다. 입주인이 집을 팔았기 때문이다. “주인이 팔았는데 아떡해. 할 수 없이 나가야지. 아쉽긴 하죠. 새로 이사가는 곳에도 친구들이 많아요. 원래 오래 살았으니까.”



쪽방 주민 박재명 씨

박재명(남·80) 씨는 젊었을 적 영등포에서 유점염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영등포에 있을 때 아내랑 이혼하게 됐어. 하나뿐인 아들도 연락이 끊겼고, 아들은 뒤늦게 연락이 됐는데 대구에 살고 있다고. 언제 한번 보러 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와.” 업소 사업을 하기 전에는 건축화청업을 했다. 그가 시골한 공사 중에는 안암동 로터리도 있다.



쪽방 주민 조인순 씨

카메라를 보고 반갑게 말을 건넨 조인순(남·63) 씨는 쪽방상당소 사진관에서 사진을 배우며 우물증을 극복했다. 그는 40년간 조리사 일을 했지만, 건강이 나빠지며 그만두게 됐다. 그의 양쪽 무릎엔 인공 관절이 들어있다. “긴 강이 나빠지면서 수술과 임원을 반복하다 보니 병원비로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돈이 쏄들니라 하는 수 없이 쪽방으로 들어온 거죠.” 허리 수술 이후 염증이 심해져 다리 힘을 못 쓰게 됐지만, 다시 걸을 힘을 기르기 위해 보행 보조기를 끌며 쪽방촌을 활보한다. “이혼하고 여기서 혼자 살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지. 쪽방상당소 소장님이 사진반을 소개해 줬어요. 사진을 배우면서 우물증이 많이 극복됐어요.”



쪽방 주민 홍순철 씨. 문 앞에는 그가 키우는 카나리아 한 쌍이 있다.

+



창신동 쪽방촌 입구

창신동 쪽방촌 스케치

## 골목 안으로 스며든 사람들

쪽방은 세면, 취사, 용변 등을 해결할 수 없는 0.5평(1.65㎡)~1평(3.3㎡) 정도의 작은 방이다. 대개 보증금 없이 산 값으로 운영돼 빈곤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모여든 도시 빈민층이 율락가, 고시원, 여인숙 인근으로 몰리면서 형성된 것이 시작이다. 이후 도시 정비 계획으로 점점 축소됐지만, 쪽방촌은 현재까지 도시 빈민의 최종 주거지로써 남아 있다. 서울의 주요 쪽방촌은 창신동을 비롯해 남대문 5가, 돈의동, 동자동, 영등포에 있다.



쪽방 건물에 들어서면 쿼퀴한 골방내와 화장실 악취가 코를 찌른다. 창도, 조명도 찾기 힘들다. 장판 대신 종이 상자를 바닥에 깔고 지내기도 한다. 부엌이 없어 휴대용 가스버너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방바닥에는 음식을 찌거나 빈 술병이 널려있다. 화장실 바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됐다.

창신동 쪽방촌 화장실의 모습. 벽에 가득 핀 곰팡이가 눈에 띈다.



종이상자를 바닥에 깔고 아전 침대를 펼쳐 놓은 쪽방의 모습.



쪽방 주민이 더위를 피해 방 밖으로 나와있다.

냉난방 문제는 쪽방촌의 고질적인 문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공약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서울 지역 쪽방 282개동에 150개의 에어컨을 공급했다. 그러나 쪽방 1개 동이 대개 3~4층임을 생각하면 에어컨이 총마다 설치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 몸 누이는 것만으로 쪽방은 가득 찬다.



거동이 불편한 쪽방 주민이 기마를 계단을 위로 내려오고 있다.



창신동 쪽방촌의 전경

도시 빈민으로의 고착화

이호연(남·70) 씨는 3년 전 창신동 쪽방촌에 들어왔다. “원래 일용직을 했어.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 틈을 짜서 일하러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렇게 하루 이틀 일을 못 나가게 되다가 아는 친구가 여기 방을 하나 소개해줘서 들어오게 됐어.” 이 씨는 올해 초 발견된 협심증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더욱 밀려났다. 이 씨와 같은 사람에게는 공공근로라는 대안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쪽방 주민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 “그걸 뒤흠러 해. 일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지도 않는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 되면, 기초생활수급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들을 돕는 사람들

# 쪽빛 하늘 아래 방긋 웃으며



창신동 쪽방상당소 남녀들이 커피방에서 주민들이 블루베리 스무디 레시피를 교환하고 있다.

창신동 쪽방상당소에서 유일한 간호사로 근무하는 김현기(남·34) 씨는 3개월 전 상당소로 왔다. 매일 쪽방촌을 돌아다니다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는 한 번 나갈 때마다 100명을 회진한다. 장애인 비율이 15~20%, 질병으로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95%인 창신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김 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여기 주민분들 다 모아서 검사하면 절반 정도는 정신 장애가 있을 거예요. 일반 가정집이면 제가 들어가서 치료를 하면 돼요. 하지만 이분들에게 쪽방촌은 삶의 전부죠. 제가 그분들을 환자로 대하면 여기를 떠나 노숙 생활을 시작하지도 몰라요.”

그렇게 주민들과 유대감을 쌓은 김 씨는 이제 병원을 직접 예약해 주민들을 보내고 국립중앙의료원에도 함께 다녀온다. “의료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제 데에 약 먹으면서 술 잘 먹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분들에게 술은 하나의 낙이기에 제가 그것까지 바꿀 수는 없지만, 잘 지내고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죠.”



쪽방상당소 김현기 간호사가 쪽방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쪽방촌 여름나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물품 상자로 가득 찬 손수레를 끌고 있다.



쪽방 주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다.

“몇 박스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냅시다!”

지난 16일, 창신동 쪽방상당소 지하 1층의 다목적실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다. 본교 사회공헌원(원장=어도선 교수)에서 진행한 ‘쪽방촌 여름나기 봉사활동’의 오전 팀 참가자들이 주민들에게 나눠줄 물품 상자를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품 상자는 모기약, 갈비탕, 오렌지 주스, 타향용 선풍기, 포도당, 총 5가지 물품으로 구성됐다.

오후 팀 참가자들은 이 물품 상자들을 주민들에게 배달했다. 상자로 가득 찬 손수레가 쪽방촌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과 함께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상자를 집까지 배달하는 학생들의 이마엔 금세 붉은 땀방울이 맺혔다. 더운 날씨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봉사에 참석한 최혜령(문과대 한문19) 씨는 “현장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미디어에서 보던 것보다 방이 훨씬 작아 놀랐다”고 밝혔다.



두 명의 학생이 쪽방 주민에게 물품 상자를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주민은 아버지를 회상하며 카나리아를 기르고 있었고, 또 어떤 주민은 사진을 취미 삼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일을 포기했다. 어도선 사회공헌원장은 “쪽방촌은 세상의 일이 잘 안 풀려 노숙자가 되기 바로 전 단계”라며 “이들이 쪽방촌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자립심을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노숙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쪽방촌은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돼야 한다”며 쪽방촌의 ‘저점 역할’을 강조했다.

+